

“국민에게 친숙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인터뷰... 송호동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가 7월 개소식을 갖고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 제7호 송우웰빙타운 5층에 동지를 틀었다.

송호동 지사장을 비롯해 행정지원팀 3명, 연금지급팀 5명, 고객이 입지인팀 8명, 고객납부지원팀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는 상담·업무지원인력으로 상담원 9명과 고객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수급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 포천지사 가입자 현황을 보면 포천시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2만18천265명, 지역가입자 중 비농업인 1만3천497명, 농어민이 2천245명, 납부예외가 1만6천508명 등 모두 6만515명이다.

규모별 사업장 현황은 5인 미만 2천121개소, 10인 미만 1천260개소, 30인 미만 629개소, 50인 미만 95개소, 100인 미만 36개소, 100인 이상이 20개소 등이다.

전체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약 81%)이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가입자 관리 및 연금보험료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포천지사에서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수급자 현황을 보면 포천시의 경우 노령연금 6천775명, 장애연금 246명, 유족연금 1천308명, 반환일시금 216명, 사망일시금 17명 등 모두 8천562명으로 전국 173만15천272명의 0.5%에 해당한다.

송호동 지사장은 국민연금 포천지사의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 극대화를 도모하고 고객상담 능력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믿음을 주는 공간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도서, 음료, 서식, 환경미화등을 실시하고 민원실 입구에 직원배치도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처리 태도 향상을 위해 '내연금 알아보기' 활성화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실비보상제도 운영(1만원권 문화상품권) 활성화, 고객관리의 내실화 도모(찾아가는 서비스 적극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송 지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위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합하고 단결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화의 시간을 통한 직원 고충해소 및 업무개선과 직원간에 수시 업무협의를 실시해 상호이해와 협력분위기 조성은 물론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수시교육을 통한 PVDA(Passion(열정) Vision(비전) Decision(결단) Action(행동))의식함양 및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체계적인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주, 월 단위 직원 자율적인 업무점검 및 공유, 업무개선 모임운영과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송 지사장은 고객관리의 안정기반 유지·강화를 위해 신규가입 대상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수용성을 제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납기내 납부유도로 체납방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방지를 위해 신규가입사업장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안정적인 징수기반을 확충하고 자동이체 및 납부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장 업무부담 경감 유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밀착상담 및 설득을 통해 당월분 우선납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 지사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3A(Anyone, Anytime, Anywhere)실현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국민에게 친숙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바르게 알리기 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이해와 실감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이라는 마인드를 함양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송호동 지사장은 “시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를 당부”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테크 4

투자, 아무나 한다고요?

4%대 저금리의 은행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눈을 돌리고 있다. 재테크 정보를 열심히 찾고 수익이 좋다는 상품에 모두가 달려든다. 작년부터 불고 있는 적립식 펀드 열풍이 이런 세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고수익을 위한 투자에는 반드시 고위험의 함정이 있다. 일시적으로 투자자금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의 비상사태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때 투자를 중단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투자에 나서서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 계획적, 장기적인 투자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의 기본적인 안전판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준비되면 매일 남는 자금을 여유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인생에 있어서 안전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긴급예비자금의 준비다. 이는 가정의 실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 없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상금이다. 통상 매월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분을 준비해야 한다. 이 돈은 언제나 빼 쓸 수 있는 통장에 보관을 하되, 생활비를 넣어두고 쓰는 통장과는 분리해야 한다.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붙는 종합금융사의 CMA나 은행의 MMF 계좌가 좋다.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대비다. 가정의 조기 사망 시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에 대한 대책과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큰 질병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치료를 열심히 찾고 수익이 좋다는 상품에 모두가 달려든다. 작년부터 불고 있는 적립식 펀드 열풍이 이런 세태를 반영한다.

세 번째는 노후에 대한 준비다. 노후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치게 될 확정된 미래다.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의 속성상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로 늘어나는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 돈으로 더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세 가지 안전판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나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이자가 적더라도 안전한 은행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하고 나서 투자에 나서게 된다. 어쨌든 투자에 나서면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패의 악순환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더더 가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재무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제125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용현어린이집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제12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용현어린이집에서 보호원놀이시설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기관의 실

내시설 및 놀이기구 등을 점검하여 사전에 사고발행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런 행사로 아동사고의 재해를 감소 및 유아조기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02 대일모터

대형모터 · VS 모터 · 수중펌프 전문



대표 김광재

전반적인 핵심기술 확보와 철저한 A/S를 바탕으로 독특한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년간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일모터(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0-16 대표: 김광재)

수중펌프 및 VS모터·DC모터·각종모터의 모든 것을 각 업체 및 다양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대일모터는 대일만의 독특한 기술력으로 각 업체의 안전을 선도하고 있다.

고객위주의 경영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국내 산업기술혁신에 일익을 담당하며 농업용·공업

으며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모터의 기능과 모터 관리에 고객의 기대에 부응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대일모터는 우정 아파트, 일신아파트, 삼호산업 등 1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의 모터 및 오패수를 관리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김 대표의 성실과 일에 대한 열정이 뒤따라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한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한몫을 차지한다.

성실과 열정, 신뢰를 주무기로 운영하고 있는 대일모터는 알뜰한 내실을 추구하며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 대표의 첫 직업을 이룬 전기 기술자다. 지난 2000년 위 소재에 대일모터를 접합하기 전에는 해외에서 다년간 전공으로 활동해온 배터라이다. 전기에 몸담아 오면서도 모터에 매력을 느끼면서 시작하게 된 모터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천직으로 알고 모터에 계속 종사할 것을 약속한다.

대일모터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자”란 사훈으로 김 대표와 직원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신속·정확한 서비스는 두말할 여지

성실과 열정 신뢰를 주무기로 한 운영 철저한 A/S ·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

용·산업용 모터 및 펌프를 신속·정확하게 수리·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업체들은 자사의 경쟁력 강화에 초석을 다지며 브랜드 입지를 높여 가고 있다.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일모터는 다양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터를 성능시험과 해체·분석 등을 통해 고객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력 강화와 동시에 자사 이미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각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나 수중펌프 등의 고장 시 즉시 방문해 체계화된 진단을 통해 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철저한 A/S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

가 없다. 관리하고 있는 각 업체들의 모터, 펌프 고장 시에는 각 업체들의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긴급 출동 후 철저한 A/S·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수중펌프(전문) 각종 모터·중고 모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오·패수 시설부터 관리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변화된 미래를 향한 대일모터의 꿈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031)543-1030 011)386-802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대일모터는 전반적인 핵심기술 확보와 철저한 A/S를 바탕으로 독특한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년간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 경작하는 밭일 때 비과세 여부

▲질문
이번에 토지를 팔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20년 이상 된 재가 사는 소재지의 임야입니다. 등기부 상에는 임야로 등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0년 이전부터 밭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자경농지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또한 세금 신고할 때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제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1: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은 공부상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에 의하여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결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2006.2.9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한.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로서의 토지로서의 환지에 정지의 정지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질문2: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006년12월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보 하부 거푸집 해체 작업중 거푸집 낙하

▲재해개요

지하 1층 주차장 내 보 하부 거푸집 (7.5m x 0.9m; 약 270kg) 해체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가 파이프포트 내관(2m)을 이용하여 거푸집 지지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경사 버팀 파이프 서포트(3.2m)의 상단에 힘을 가해 피재자 방향으로 잡아당기던 순간, 보 하부 거푸집이 콘크리트 구체에서 탈락하여 낙하·회전하면서 파이프서포트를 강타하자 파이프서포트가 뒹기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예방

-거푸집 해체시 작업장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거푸집의 낙하 및 파이프서포트의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안전



재해발생상황도

한 장소에서 해체도구(지렛대 등)를 이용해 파이프서포트와 보하부거푸집을 작업자의 반대방향으로 넘어 지도록 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거푸집을 일체로 해체하는 방법은 폭발적인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설치·해체시 분절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거푸집동바리의 각 부재(거푸집동바리 명에장선)를 순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해체.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월급은 어디서 주나?

공단 직원 공무원 신분 아니라 ‘연금’ 가입 대상 월급은 연금 기금 및 일반회계, 농특세회계에서 나눠 분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별도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며,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가입한다.

직원들의 월급 역시 국민연금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일반회계, 농특세회계 등에서 각각 집행한다. 각 주체별 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61.5%, 일반회계 30%, 농특세회계 8.5%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간 총예산은 4조 2500억에 달하지만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관리비 예산은 그 중 7.8%(3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에 다 쓰인다”는 소문은 기우에 불과하다. 총예산 중에는 연

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비용(3조 8256억원)이 포함됐으며 일반관리비 구성 비율은 인건비 61%, 고지서 발송 등 기타 경비가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7년 10월 19일 본부 6부 15과 14과 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돼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지급,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국민연금확대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됐다.

2005년 현재 본부 7실 2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연구원,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국 84개 지사, 57개 통합지원센터, 12개 국민연금 상담소에 총 4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